

감독자 확인	
인문 계열	공통 1, 2 문항

# 2011학년도 수시2차모집 논술시험 문제지

2010년 11월 29일 (제3교시)

수험  
번호

성  
명

<가> 웅장한 소리로 회장을 부르니 산천이 울린다. 연단에 올라서서 머리를 설레설레 흔들고 좌중을 내려다보니 눈알이 등불 같고 위풍이 늄름한데, 주홍 같은 입을 떡 벌리고 어금니를 부지적 같며 연설하는데, 좌중이 조용하다.

“본원의 이름은 호랑인데 별호는 산군이올시다. 여러분 중에도 혹 아시는 이도 있을 듯하오. 지금 가정(奇政)이 맹어호(猛於虎)라 하는 문제를 가지고 두어 마디 할 터인데, 이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것과 같이, 옛적 유명한 성인 공자님이 하신 말씀이라. 가정이 맹어호라 하는 뜻은 까다로운 정사(政事)가 호랑이보다 무섭다 함이니 혹독한 관리는 날개 있고 뿐 있는 호랑이와 같다 한지라, 세상 사람들이 말하기를, 제일 포악하고 무서운 것은 호랑이라 하였으니, 자고이래로 사람들이 우리에게 해를 받은 자가 몇 명이나 되느뇨? 도리어 사람이 사람에게 해를 당하며 살육을 당한 자가 몇 억만 명인지 알 수 없소. 사람들의 악독한 일을 우리 호랑이에게 비하여 보면 몇 만 배가 될는지 알 수 없소. 또 우리는 다른 동물을 잡아먹더라도 하느님이 만들어 주신 발톱과 이빨로 하느님의 뜻을 받아 천성의 행위를 행할 뿐이어늘, 사람들은 학문을 이용하여 화학이니 물리학이니 배워서 사람의 도리에 유익한 옳은 일에 쓰는 것은 별로 없고, 각색 병기를 발명하여 군함이니 대포니 총이니 탄환이니 화약이니 칼이니 활이니 하는 등물(等物)을 만들어서 재물을 무한히 내버리고 사람을 무수히 죽여서, 나라를 만들 때의 만반 경률은 다 남을 해하려는 마음뿐이라. 그런 고로 영국 문학박사 팬스라 하는 사람이 말하기를, ‘사람이 사람에게 대하여 잔인한 까닭으로 수 천만 명 사람이 참혹한 지경에 들어갔도다’ 하였고, 옛날 진소왕이 초회왕을 청하매 초회왕이 진나라에 들어가려 하거늘, 그 신하 굴평이 간 하여 가로되, 진나라는 호랑이 나라이라 가히 믿지 못할지니 가지지 마소서 하였으니, 호랑이의 나라가 어찌 진나라 하나뿐이리요. 오늘날 5 대주를 둘러보면, 사람 사는 곳곳마다 어느 나라가 욕심 없는 나라가 있으며, 어느 나라가 포학(暴虐)하지 아니한 나라가 있으며, 어느 인간에 고상한 천리를 말하는 자가 있으며, 어느 세상에 진정한 인도를 의론하는 자가 있느뇨? 나라마다 진나라요 사람마다 호랑이라 생각하옵니다.”

<나> 나라끼리 교제하는 것도 또한 만국 공법으로 규제하여, 천지에 공평무사한 이치에 따라 한결같이 행해 나간다. 그렇기 때문에 커다란 나라도 한 나라고, 작은 나라도 한 나라인 것이다. 나라 위에 나라가 없고, 나라 아래에도 또한 나라가 없다. 한 나라가 나라 되는 권리(主权)는 피차 동등하고, 지위도 텔끝만한 차이가 없다. 그러므로 모든 나라가 우호적이고 평화로운 뜻으로 균등한 예우를 갖추어 조약을 서로 교환하고 사절단을 서로 파견함으로써, 강약을 구별하지 않고, 권리를 서로 지켜주며 침범하지 않게 되었다. 다른 나라의 권리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자기 나라의 권리도 스스로 파괴하는 결과가 초래되기 때문이다.

만국 공법은 약소국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수호조약, 항해조약 및 통상조약 체결권, 총영사 및 무역사무관 파견권, 교전이나 강화를 선언할 권리, 이웃 나라끼리 군사 행동을 취할 때에 중립을 지킬 권리 등을 보장하여 이를 주권에 포함시켰다. 공법에 통달한 어느 학자가 “속국이라는 말은 오늘날 어울리지 않는 명칭이다”라고 말하였다. 그 뜻은 한 나라로서의 체제를 갖추고 있는 나라가 비록 작더라도, 강대국이 형세대로 통합할 권리가 없음을 가리킨 것이다. 설령 약소국이 강대국의 사나운 위협과 난폭한 펑박을 못 이겨, 자기 나라를 스스로 보전하기 위한 방편으로, 예전에 없었던 속국의 체제를 한때 자인한 적이 있더라도, 이 일 때문에 본래부터 오랫동안 가지고 있던 권리를 잃어버리지는 않는다. 위협과 펑박 아래서는 스스로 긍정하는 승인을 할 수가 없으며, 또 그러한 승인은 합법적인 조치가 아니기 때문에, 억지로 백번 승인했다 하더라도 만국 공법의 조항에 의해 소멸되는 것이다.

<다> 변환론자는 현대의 세계화 과정이 역사적으로 전례가 없는 것이고 전 세계 정부와 사회는 이제 국제와 국내, 외치와 내치가 명백히 구분되지 않는 세계에 적응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변환론의 핵심에는 현재의 세계화가 일국 정부의 권력, 기능 및 권위를 재형성 또는 재구축하고 있다는 믿음이 깔려 있다. 변환론자는 국가가 ‘자국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사안을 독점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궁극적인 법적 근거를 여전히 가지고 있음을 부정하지는 않지만, 국가의 지배 권역은 확대되고 있는 국제적 협력 통치의 관할권이나 제한 요소 및 의무사항과 점점 겹쳐진다고 주장한다. 이 점은 주권적 권한이 국제·일국·지방당국 사이에 분할되어 있는 유럽연합(EU)에서 특히 뚜렷하지만, 세계무역기구(WTO)의 운영에서도 잘 드러난다. 주권이 온전하게 자국의 권한으로 보존된 곳에서도, 국가는 더 이상 자기 영토 내에서 발생하는 사안에 대한 독점적 지배력을 갖지 못한다. 금융에서 생태에 이르는 복합적인 세계 체제가 한 지역공동체의 운명과 세계 반대편 지역공동체의 운명을 연결한다. 게다가 세계 수준의 통신·운송의 하부구조가 국가 경계를 넘어서도 효율성이나 통제력이 줄지 않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사회적 조직을 지원한다. 권력의 소재지와 권력 행사의 대상이 말 그대로 대양을 사이에 두고 떨어져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자율적 단위로서의 국가 개념은 이제 서술적 진술이라기보다는 규범적 주장처럼 들린다. 영토적으로 한정된 주권통치라는 근대적 제도는 경제·사회 생활의 많은 측면이 초국적으로 조직되어 있는 현실과 대비시켜 보면 다분히 비정상적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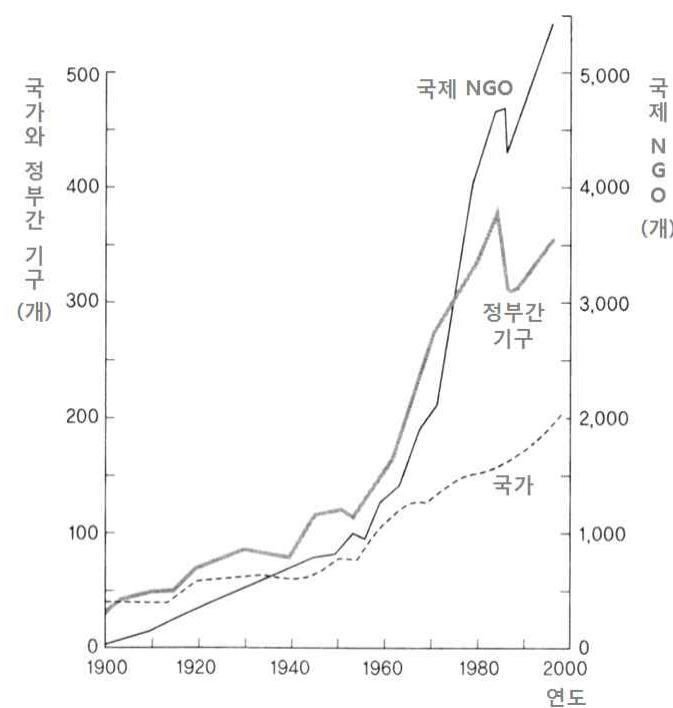
변환론자는 세계화가 일국 정부의 권력과 권위를 변화시켜 재형성한다고 주장하면서, 일반적인 과대세계화론자가 말하는 ‘주권 국민국가의 종언’과 같은 수사와, 회의론자가 말하는 ‘변화는 없다’식의 주장 모두를 배격한다. 대신 변환론자는 새로운 ‘주권 준칙’이 기준의 절대적이고 분할될 수 없으며 자국 영토 내에서 배타적이고 자체 완결적인 공권력으로서의 국가 개념을 대신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따라서 변환론자는 오늘날의 주권을 ‘영토적으로 정의된 경계라기보다는 초국적 네트워크의 성격을 갖는 정치 활동에서 필요한 일종의 교섭 기구’로 이해하는 편이 낫다고 본다. 이제 세계 질서는 더 이상 순전히 국가에 의해서만 통치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통치의 권위가 점차 지방적(local), 일국적(national), 지역적(regional), 세계적(global) 차원의 공적·사적 기구들로 확산되었기 때문이다. 이 세계에서 국민국가는 더 이상 협력 통치나 권위의 유일한 중심이 아니다.

<라> 코페르니쿠스 이후의 천문학자들은 모두 행성의 이상한 운동을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에 직면했고, 이에 따라 행성의 개념 자체를 바꾸는 방식으로 그 변화를 설명하고자 하였다. 행성이라는 개념의 의미를 규정할 때, 코페르니쿠스 이전의 정의에서는 ‘행성은 지구 둘레를 운동해야 한다’는 항목이 핵심적이었다. 그러나 케플러와 뉴턴의 행성 정의에는 ‘태양의 주위를 회전하는 운동’이 요구되었다.

개념과 그 개념이 들어 있는 명제 사이에는 긴밀한 관계가 있다. 한 개념을 다른 개념과 분리하여 겹토하게 되면, 그 개념의 의미를 충분히 이해할 수 없다. 중세 천문학에서 근대 천문학으로 발전하면서 행성의 개념이 어떻게 변화했는가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태양이나 행성 등과 같은 관련 개념의 변화를 분석해야 한다. 코페르니쿠스 이전에 지구는 행성으로 간주되지 않았다. 이와 유사한 맥락에서, 달과 태양은 행성으로 간주되었다. 왜냐하면 달과 태양이 지구 주위를 운동한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코페르니쿠스 이후에는 달과 태양이 더 이상 행성으로 취급되지 않았다. 왜냐하면 달은 지구 주위를 돌고, 지구는 태양 주위를 돌기 때문이다.

1. 제시문 <라>에서 드러난 설명 방식을 이용하여 제시문 <다>에 나타난 국가의 성격 변화를 설명하시오. (300자 ± 30자)

2. 국가 간 관계에 대한 제시문 <가>와 <나>의 입장을 토대로 아래 <그림 1>과 <표 1>에서 추론 가능한 국제 관계를 설명하시오. (900자 ± 90자)



<그림 1> 20세기 국가, 정부간기구, 국제 NGO의 증가

<표 1> 20세기 말 주요 수출국별 영화 판매 분포

해당국	해당국 영화를 배급받는 국가의 수	해당국 영화 판매가 영화산업의 주 수입원인 국가의 수	해당국 영화판매가 전체 수입영화 판매의 최소 5% 이상에 해당하는 국가의 수
미국	79	56	79
프랑스	68	5	40
이탈리아	71	2	52
인도	42	6	27
영국	69	1	33
독일	56	0	15
일본	46	0	7

감독자 확인	
인문 계열	인문계열 3 문항

# 2011학년도 수시2차모집 논술시험 문제지

2010년 11월 29일 (제3교시)

수험  
번호

성  
명

<가> 핀란드 야르벤빠 고등학교에서 가장 감동받은 것은 바로 학교 건물과 교육환경이었다. 건물 자체나 내부 인테리어가 아주 훌륭하고 학교 공간 곳곳은 최상의 교육활동이 가능하도록 설계되었다.

공동체로서의 소속감을 가질 수 있도록 가운데 공간에 만남의 광장을 만들었다. 이 광장을 중심으로 방사형으로 연결된 건물에는 영역별로 다섯 개의 파트로 나뉘, 집중과 분산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공간이 배치되어 있다(<그림 1> 참조). 중앙홀에는 식당, 도서관 등 학생 편의 시설이 집중되어 있다. 중앙홀로 연결된 날개에는 각각의 교과군에 필요한 시설과 교실이 집중되어 있다. 2층은 화학, 수학, 물리 등의 과학 학습 공간이며 3층은 인문 과목의 강의가 이루어지는 곳이다. 날개들이 개별성과 선택의 자유가 향유되는 공간이라면, 중앙홀은 개인을 넘어서서 공동체를 느끼고 호흡할 수 있는 공간이다. 이 학교 건물은 작은 우주라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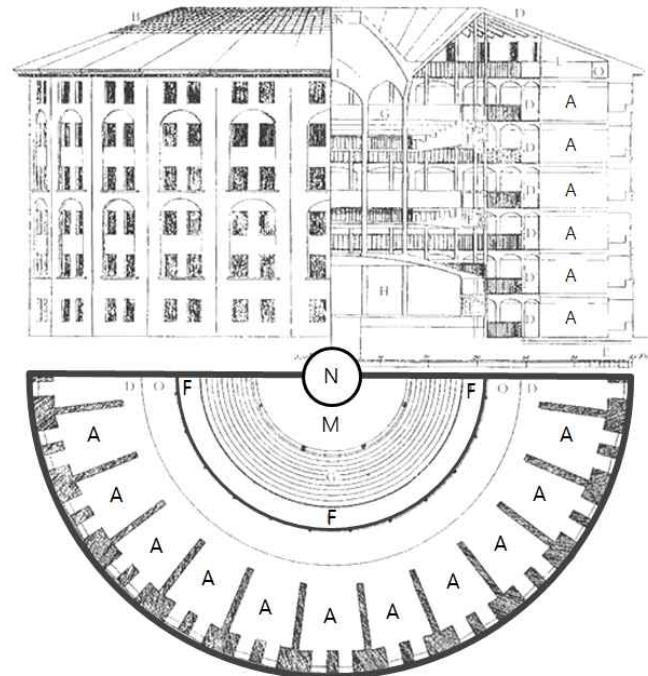
교육과정의 구성이나 운용은 학생 개개인에게 최적의 학습을 제공하기 위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 예로 1994년 이래 무학년제를 도입하였다. 이에 따라 각 학생이 자신에게 맞는 학습 계획을 세우고 무엇을 배울 것인지, 학습 속도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를 스스로 조정할 수 있게 되었다. 자기주도성과 상호소통을 통해 학생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협동심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리고 교사와 학생 간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모든 곳은 투명한 유리로 설치되었다. 과거의 학교는 군대식 교육을 해서 교사와 학생들 간의 소통이 전혀 이루어질 수 없었다. 지금 선생님들은 공동으로 방을 사용한다. 이동식 수업을 하기 때문에 담당 교실이 자기 방이 되며, 공동 방은 서로 수업에 대해 논의하고 아이들에 대해 의논할 수 있는 공간이 된다. 교장 선생님의 방은 아주 작다. 학교 1층 구석에 위치해 있는 방은 교장의 권위를 찾아보기 힘들다. 늘 돌아다니며 아이들과 대화를 나누고 토론에도 참여하므로 방에 머물 시간이 별로 없다. 다른 학교나 다른 나라에서도 이 학교 건물을 보기 위해 온다고 한다.



<그림 1> 핀란드의 야르벤빠 고등학교

<나> 원형감옥 파놉티콘(Panopticon)의 바깥쪽에는 죄수를 가두는 방이 있고 중앙에는 죄수를 감시하기 위한 원형공간이 있었다(<그림 2> 참조). 죄수의 방에는 햇빛을 들이기 위해 밖으로 난 창 외에도 건물 내부를 향한 또 다른 창이 있어, 죄수의 일거수일투족이 중앙의 감시탑에 있는 간수에게 항상 포착될 수 있었다. 저녁에는 죄수의 방에 불을 밝힘으로써 방을 밝게 유지했다. 반면 죄수는 중앙 감시탑의 내부가 항상 어두워 간수를 볼 수 있는 키佞 간수가 자신을 감시하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었다. 죄수는 간수를 볼 수 없는 채 항상 보여지기만 하고, 간수는 보여지지 않은 채 항상 모든 죄수를 감시할 수 있었다. 이 시선의 ‘비대칭성’이 파놉티콘의 핵심구조였다. 파놉티콘에 수용된 죄수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항상 자신을 감시하고 있을 간수의 시선 때문에 규율에서 벗어나는 행동을 하지 못하다가 점차 이 규율 권력을 내면화하여 스스로 자신을 감시하게 된다. 감시는 보편적이었고, 영구적이었으며, 포괄적이었다. 이런 의미에서 파놉티콘은 감시의 원리를 체화한 자동기계이다. 자동기계에는 파놉티콘의 컴컴한 감시공간에서 누구도 간수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미가 함축되어 있다. 건축물과 그 기하학적 구조를 제외하고는 다른 물리적 도구 없이, 파놉티콘은 직접적으로 개개인에게 작동하며 정신에 의한 정신에 대한 권력 행사인 것이다.



<그림 2> 벤담의 파놉티콘

A: 죄수의 방 F: 간수의 감시공간

<다> 중부휴게소에 처음 내린 사람이 변소에 갈 때는 습관적으로 건물 옆쪽으로 가곤 한다. 차마 저렇게 번듯하게 생긴 집 안방자리에 뒷간이 모셔져 있으리라는 생각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부휴게소의 긴 건물 양쪽 끝에는 ‘화장실은 중앙홀 안쪽에 있음’이라는 안내문이 짜증스러운 글씨체로 써어 있다. 오는 사람마다 변소가 어디 있느냐고 묻는 것에 대한 신경질적 반응이다. 하지만 신경질 낼 사람은 오히려 우리 같은 사용자 측이다. 왜 상식에 벗어난 구조를 만들어 사람을 헛걸음질시켜, 화장실에 가는 사람이 무슨 대단한 벼슬문에라도 들어가듯 중앙홀에 모여있는 사람들을 밀치면서 가게 하여 남부끄럽게 만들었는가. 그리고 그 넓은 공간을 다 버려두고 요 구석만 바글거리게 해놓았는가.

중부휴게소 건물은 이른바 포스트모더니즘 경향의 건축물이다. 다원적 요소를 공존시키고 일상적 공간습관을 해체, 변형시키며 공간분할에 오픈스페이스 개념을 확대하였다. 내용과 형식 모든 면에서 현대인의 골 아프고 뒤숭숭한 정서를 즉자적으로 반영하고 있는 셈이다. 그래서 중앙홀의 천장은 철빔으로 떠받쳐 으레 막혔다고 생각하는 천정을 시각적으로 노출시키고, 식당이나 커피숍이 있을만한 자리에 뒷간을 모셔놓고, 드나드는 자와 쉬는 자, 물건 사는 자의 동선을 뒤엉키게 하고, 변소 입구엔 문짝도 달지 않아 개방감을 확대시켰다. 하지만 그 결과란 바글대는 메인홀과 변소의 배설물 냄새가 커피 판매대까지 진동하는 도떼기시장처럼 된 것일 뿐이다. 포스트모더니즘적 공간 배치를 시도한 중부휴게소는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철저한 상업주의에 편승하고 이용자의 편리성은 철저히 배제하는 비공공성의 공공건물이 되고 말았다.

3. 공간 배치와 활용의 측면에서 제시문 <가>와 <나>를 비교하고, 제시문 <가>를 토대로 제시문 <다>의 주장은 비판하시오. (1000자 ± 100자)